

목회서신 안의 경건과 불경건의 개념*

The Concept of Piety and Impiety in the Pastoral Epistles

구기정 박사 (Koo, Ki-Chung)

대신대학교 전임강사 (신약학)



신약성서에서 기독교의 “영성”(spirituality)과 가장 가까운 용어는 “경건”(εὐσέβεια)이란 용어이다. 우리는 이 용어가 신약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목회서신을 살펴보았다. 거기서 그 용어는 “불경건”(ἀσέβεια)이란 용어와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신학적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 즉, 그 용어들은 구원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경건” 용어의 자세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 용어의 기원, 그 공동체의 상황(*Sitz im Leben*), 목회서신안의 경건과 불경건의 용어를 조사하였다. 특히 주된 질문은, 목회서신의 경건의 의미는 헬라적, 구약적 경건/불경건의 의미와 어떻게 다른가? 이다.

결국, 목회서신의 경건/불경건 용어가 함축하는 바는 이방세계도 이방신들이나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경건한 백성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참된 경건심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려 했지만, 그들의 신적 지식과 삶은 불경건으로 흘렀다는 것, 그리고 새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기초한 새로운 이해와 삶의 태도를 갖추도록 설립되었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목회서신의 용법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이고, 그것은 온갖 불법에서 벗어나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

는 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과거에, 경건에 불려 졌던 이스라엘이 이방세계의 불경건을 답습함으로 파멸하였다면, 새 메시아의 공동체는 같은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서신의 용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경건한 삶은 구원을 보장하지만, 불경건한 삶은 그것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주제어: 경건, 불경건, 윤리, 구원, 덕, 선한 행실

1. 서 론

기독교의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용어를 신약성서에서 찾아보려고 할 때, 그에 완전히 일치하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영적인”(πνευματικός) 용어가 신약에 자주 등장하지만 의미론적으로 “영성”용어와 같지 않다. 이 용어 대신에,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영성을 다룰 때 자주 언급하는 용어들은 거룩, 의, 성화, 덕, 경건 등의 용어이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볼 때, 기독교 “영성”과 가장 가까운 용어는 “경건”이란 용어이다.¹ 이 용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εὐσέβεια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용어가 신약성서 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목회서신(디모데전후서, 디도서)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² 특징적인 점은 이 “경건”의 용어가 목회서신 안에서 “불경건(ἀσέβεια)”³

¹ 더 구체적으로 Samuel M. Powell, *A Theology of Christian Spiritualit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3-5를 보라. 그는 경건이 기독교 삶을 포함하는 모든 것 이웃 사랑, 자기 규율, 영적 연습, 공적 예배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² 우리가 목회서신 안에서 살펴볼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경건(εὐσέβεια, 딤후 2:2, 3:16, 4:7, 8, 6:3, 5, 6, 11; 딤후 3:5; 딤후 1:1), 경건한 생활을 하다(εὐσεβέω, 딤후 5:4), 경건하게(εὐσεβῶς, 딤후 3:1; 딤후 2:12), 하나님 공경(θεοσέβεια, 딤후 2:10). 참조.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경건” 용어들은 나타난다: 경건(εὐσέβεια, 행 3:12; 벧후 1:3, 6, 7; 3:11), 경건한(εὐσεβής, 행 10:2, 7), 경건한 생활을 하다(εὐσεβέω, 행 17:23), 하나님을 공경하는(θεοσεβής, 요 9:31). 예배하다(σεβῶμαι 또는 σεβω, 마 15:9//막 7:7; 행 13:43, 50, 16:14, 17:4, 17, 18:7, 13, 19:27; 롬 1:25), 예배하다(σεβάσσομαι, 롬 1:25), 예배의 대상(σεβασμα, 행 17:23). 황제 폐하(Σεβαστός, 행 25:21, 25:25, 27:1).

이란 용어와 대조적인 의미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용어는 구원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경건”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먼저 용어의 기원을 다루고, 그 후 그 용어가 사용되어진 공동체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안의 경건과 불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다룬 후,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것이다. 우리의 주요한 질문은 신약의 경건 개념은 헬라 용어의 단순한 차용인가? 목회서신의 경건의 의미는 헬라적, 구약적 의미와 어떻게 다른가? 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통시적인 접근법과 공시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2. 경건과 불경건 용어의 기원과 발전

2.1. 헬라세계

“경건”의 헬라이인 εὐσέβεια(εὐ-σεβουαι의 파생어)의 어근은 “σεβ-”인데, 그 의미는 가장 초기인 호머의 시대부터 “움츠리다”였고, 후에 “-앞에서 넘 어지다”로 변화되었다.⁴ 어원적으로 보아서 두려움 앞에서 움츠리는 행위로 부터 경건 용어의 기원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플라톤이나 소포클레스도 신에 대한 존경 혹은 배려가 경건이라고 했다(Plato, *Eutyphron*, 12b-2; Sophocles, *Antigone*, 872). 이소크라테스, 플루타르크, 크세노폰등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 플라톤 위서(Pseudo-Plato, *Definitions*, 412e)는 εὐσέβει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신들에 대한 의, 신들에의 자발적 서비스, 신들에게 돌려야 할 명예로운 개념, 신들에게 돌려야 할 예식에 관한 지식”.⁵ 결국, 헬라세계에서 경건 용어는 “움츠리다”의 의미도 있지

³ 불경건(ἀσεβεια, 딤후 2:16; 딤후 2:12). 불경건한(ἀσεβής, 딤후 1:9). 참조. 목회서신외의 사용들: 불경건(ἀσεβεια, 롬 1:1, 11:26; 유 15, 18). 불경건한(ἀσεβής, 벵전 4:18; 벵후 2:5, 6, 3:7; 유 4, 15ab).

⁴ W. Foerster, σεβουαι, *TDNT* VII, 169.

만, 주로 신들, 부모, 나라, 영웅 등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묘비명이나 파피루스의 자료들에도, 헬라시대의 이집트에서, 시리아, 그리스, 로마 지역들에서까지 이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는데, 신들, 왕, 양친, 남편, 조국, 교양인, 귀족에 대해 경건을 실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⁶ 이 용어는 주로 신성에 대한 순수한 존경, 예배의식 행위, 외적 경건, 두려움, 종속의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단순한 존경으로, 그리고 점차 예배 의식 등, 종교적 숭배의 의미로 변화되었고,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덕과 의무로써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건”(εὐσέβεια)과 대조되는 용어는 “불경건”(ἀσεβεια)이다. 이 후자의 용어는 전자의 기원, 발전과 병행한다. 불경건이란, 헬라세계에서, 기존 질서에 반하는 행위들, 보호를 구하는 자를 넘겨주는 것, 법에 불복종 하는 것, 지혜, 지식, 정신의 잘못된 평가들을 말한다.⁷ 주로 신들에 대한 경외, 그들에 대한 제사 의식, 신적인 질서, 신의 선물 혹은 신이 준 운명의 거절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다.⁸ 불경건한 자는 신화들을 믿지 않는 자를 지칭하거나(Lucian, *Philopseudes*. 3) 혹은 불경건을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Plato, *Laws*, 10.907b). 불경건은 신들뿐 아니라, 고인, 양친, 나라 등에 대한 위배에도 관계한다(Aristotle, *Virtues and Vices*, 1251a31, “신들이나 영혼들에 대한 위배, 혹은 고인과 양친과 나라에 관한 것 역시, 불경건이다”; 참조. Aristophanes, *Thesmophoriazusae*, 367). 불경건은 행위적 측면에서도 사용되기도 하고(Lysias, *Speeches*, 6.6), 선량과 대조되는 불의(ἀδικία)의 의미에 사용되기도 한다(Platon, *Protagoras* 323e).

⁵ C. Spicq, “Religion (vertu de),” *DBS* X, 215에서 인용함.

⁶ Spicq, “Religion,” 215-18; BAGD, 412을 보라.

⁷ Foerster, *σέβομαι*, 185.

⁸ Foerster, *σέβομαι*, 185-186; BAGD, 141.

2.2. 구약용법

Εὐσεβεια어군은 칠십인경(LXX)에서 59번 나타난다. 구약 정경의 잠언(1:7, 13:11), 이사야(11:2, 33:6)에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경의 시락서(1:25; *passim*), 에스드라 3서(1:21), 마카비 2서, 3서, 4서등에서 출현한다.⁹ 위의 고전적, 헬라적 용법에 비추어 보아 구약의 경건 용어들은 신들,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던 헬라적, 세속적 경건 개념이 주로 하나님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배의 대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헬라적 용법과 구약적 용법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 MT(Masoretic Text)의 히브리어 פָּרַח (두려워하다)어군은 LXX에서 좀 더 다양한 헬라어들(시 2:12 φοβέω; 수 4:24 σέβομαι; 창 20:11 θεοσέβεια; 사 11:2 εὐσεβεια)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번역어들(두려움, 경외, 경건)은 예외 없이 같은 히브리어에서 왔으므로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므로,¹⁰ 이 용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구약의 초두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창 3:10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5:1, 18:15, 21:17; 출 1:17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 출 3:6; *passim*, MT: פָּרַח , LXX: φοβεῖσθαι).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그 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간다(출 20:20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 4:10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6:2).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사실상 경건의 의미와 같은데, 그것은 여호수아 4:24에서 MT의 פָּרַח 용어를 σέβεσθαι(LXX)로 번역한 데서 알 수 있다.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⁹ 여기서 우리는 외경 및 중간기 문학(필로, 요세푸스 등)의 용법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들은 Spicq, “Religion,” 219-23을 참조하라. 우리가 보기에, 외경 및 중간기 문학의 용법은 구약의 용법에 비해 새로운 것이 없다. 예를 들면, 마카비 4서에서 경건 용어는 모두 47번 언급되는데, 거기서 그 용어는 모든 덕의 근원으로 나타난다.

¹⁰ 다음 저자들도 우리와 같이 생각한다: Foerster, σέβομαι, 172; Henri Lestree, Piété, DBS V, 427-428; H. F. Fuhs, פָּרַח , TDOT VI, 296. 마찬가지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8번 나오는 σέβομαι(숭배하다)는 φοβέω(무서워하다, 경외하다)의 상당어이다. 또한 행 17:23에서 σεβασμα(예배의 대상)와 εὐσεβεία(경건한 생활을 하다)는 상당어로 나타난다.

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심이라”. 이러한 구절들이 구약적 경건사상을 요약적으로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형성초기에는 하나님이 경건을 기초 세우시므로 경건심이 이스라엘 안에 넘쳐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 경건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¹¹ 그러나 점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의 길을 갈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태도가 사라졌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고백에서 나타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박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사 63:17, **יְיָ**, φοβεῖσθαι). 게다가, 하나님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다. “주께서 가라사대...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 **יְיָ**, σέβομαι).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에서 경건 용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메시아에 의해 소유될 것이 예언되고 있다(사 1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MT: **יְיָ**, LXX: εὐσέβεια). 또 경건은 이사야서에 따르면 “시온의 보화”가 될 것이다(사 33:6, MT: **יְיָ**, LXX: εὐσέβεια). 즉, 구약성서의 말미는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에 새로운 경건이 설립될 것이 예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경건”(ἀσεβεια)에 관하여, LXX의 ἀσεβ-어군 역시 구약성서(MT)의 여러 히브리어에서 오는데, εὐσεβ-어군보다 ἀσεβ-어군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¹² 전체적인 사용은 약 150번이 넘는다. 특이한 점은 “경건” 용어보다 “불경건”의 의미가 구약성서에 더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¹³ 이스라엘에 의해 가나안인들이 쫓겨난 것은 그들의 불경건 때문이다(ἀσεβεια, 신 9:4, 8). 소돔의 멸망 역시 그들의 불경건 때문이다(ἀσεβής, 창 18:23, 25). 이스라엘의 삶속에서 선지자는 불경건하게 말하거나(ἀσεβεια, 신 18:22),

¹¹ C. Spicq, *Les Epîtres Pastorales* (Paris: Gabalda, 1947), 127.

¹² ἀσεβ-어군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출현 횟수 대해서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Foerster, σέβομαι, 187; Edwin Hatch & Henry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including the apocryphal books)*, I-II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8).

¹³ Foerster, σέβομαι, 187.

또 이웃을 불경건하다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다(ἀσέβεια, 신 19:16). 이스라엘 초기에 죄인은 그의 불경건의 정도에 따라 벌을 받았다(ἀσεβέω, 신 25:2). 다윗이 사울을 놓아준 것도 불경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였다(ἀσέβεια, 삼상 24:12).

그러나 점차로 이스라엘 안에 불경건이 넘쳐나는데, 이것을 증가시킨 이스라엘, 유다, 야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 예고되고 있다(ἀσέβεια, 렘 5:6; 암 3:14; 미 1:5, 3:8; 합 1:3; 습 1:9; 렘 12:1 ἀσεβέω). 즉,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차고 넘치는 불경건 때문이다(ἀσέβεια, 렘 6:7; 겔 12:9). 예루살렘은 어렸을 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경건으로 가득 차 있다(ἀσέβεια, 겔 16:43). 불경건한 자는 의(justice)나 신적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ἀσεβής, 사 26:10). 간음이나 음란(배교) 역시 불경건한 행위이고(ἀσέβεια, 겔 22:11, 23:27, 29, 35, 49),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경죄의 목록은 율법의 위배, 거짓 것의 미혹(ἀσέβεια, 암 2:4), 의인과 궁핍한 자의 학대, 뇌물 수수, 부의 축적 등으로, 율법적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죄과이다(ἀσέβεια, 암 2:6, 5:12; 미 6:12; 합 1:4). 그들은 불경건을 행하고 죄를 거둔다(ἀσέβεια, 호 10:13).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들의 죽음을 가져올 것인데(ἀσέβεια, 겔 33:9), 용서해주는 하나님 앞에(ἀσέβεια, 미 7:18) 이스라엘은 살기 위하여 불경건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권고 받는다(ἀσέβεια, 겔 18:31; 암 5:12; 사 55:7). 그러나 이 신적 부름에도 그들의 적절한 반응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방인들도 불경건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다메섹,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은 불경건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ἀσέβεια, 암 1:3, 9, 11, 13, 2:1). 갈대아인들은 땅에, 도시에, 거민들에게 불경건(노략)을 행했으므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ἀσέβεια, 합 2:8, 17). 불경건한 자들의 도시는 영영히 서지 못할 것이다(ἀσεβέω, 사 25:2).

위에서 살펴본 대로 경건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예외 없이 모두에게 실행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경건”은 회복불능의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침몰할 것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 시점에 메시아에 의해 새로운 “경건”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미래의 시온의 구속자는 “불경건”을 행하지 않는 야곱의 자손에

게 임할 것이다(ἀσέβεια, 사 59:20).

2.3. 결론: 용어의 발전

그리스 로마문학에서 경건 용법이 주로 신들, 이웃들에 대한 존경에 사용되었다면, 불경건은 그들에 대한 숭배나 일반적인 질서의 거절 등에 사용되었다. 구약의 경건 용법은 근본적으로 헬라세계의 것과 유사하나, 경건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과 경건의 실천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행위의 측면에서 언급되었다는 점이 구별된다. 결국, 경건/불경건 용법의 핵심은 신앙 대상의 인식론적 측면과 요구된 행위의 두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약은 이러한 구약적 경건 개념을 받아들인다.¹⁴ 특히 복음서 막 7:7// 마 15:9(σέβομαι)은 이사야 29:13(כָּבִדּוּ, σέβομαι)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구약적인 경건 개념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요한복음 9:31 역시 θεοσεβής(경건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점에서 구약 경건개념과 유사하다(참조 LXX 창 20:11 θεοσεβεια; 욥 28:28).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한 자였고, 그들의 경건함으로 앓은뱅이를 치료한다(행 3:12), 고넬료와 그의 종족은 경건한 자들이었고(행 10:2, 7), 경건한 헬라인도 있었고(13:50, 17:4, σέβομαι), 회당에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다(13:43, 16:14, 17:17, σέβομαι). 이방인들에게서 경건의 대상은 σέβασμα(행 17:23a, “예배의 대상”)이고, 그들이 그 대상을 위할 때 그것은 경건(εὐσεβέω, 행 17:23b; 참조 딤후전 5:4)의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는 헬라적 경건 개념과 유대적 경건 개념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

¹⁴ Foerster, σέβομαι, 181; I. Howard Marsh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 & T Clark, 1999), 140-42; George M. Wieland, *The Significance of Salvation: A Study of Salvation Language in the Pastoral Epistles* (Carlisle: Paternoster Press, 2006), 96; Philip H. Towner,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NICNT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2006), 173. 이 후자는 헬라 유대교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¹⁵ 이 구절은 σεβ- 어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2.를 보라). 게다가, 눅 2:25(“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경건하여”, εὐλαβής)에서 어떤 사본들(ⲙ K Γ 565. 700. 1424 *al*)은 εὐσεβής의 용어를 갖고 있다. 두 읽기 방법 중에서 후자의 읽기를 따를 경우에 시므온은 유대적인 경건 용법에 속하는 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

것을 볼 수 있다.

신약 중 경건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은 바울의 목회서신이지만,¹⁶ 로마서에서도 경건과 불경건 용어가 두 번 나타난다. 이 후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경건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면, 불경건은 그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ἀσέβεια, 롬 1:18, 11:26). 일반서신에서도 적지 않게 그 용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바울과 유사한 경건 개념도 나타난다(εὐσέβεια, 벧후 1:3, 6, 7). 그러나 특이점은 그 용어들이 미래의 종말론적 심판에까지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노아의 홍수, 소돔의 심판은 이 세상의 불경건에 대한 경고로서 주어졌고(ἀσεβής, 벧후 2:5, 6), 따라서 경건은 심판을 피하게 하고 신적 보호를 받게 하지만(εὐσεβής, 벧후 2:9, 3:11), 불경건은 미래의 종말론적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ἀσεβής, 벧전 4:18; 벧후 2:5, 6, 3:7; 유 4, 15ab). 다음에서 우리는 경건과 불경건 용어와 관련하여 목회서신의 상황을 조사해 볼 것이다.

3. 공동체의 상황

전체적인 목회서신 공동체(혹은 교회, 참조: 딤후 3:5, 15, 5:16의 상황을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진정성 문제,¹⁷ 수신처 문제,¹⁸ 서신들의 연대 추정¹⁹ 등 여러 질문들이 겹쳐져 있는데, 이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하

¹⁶ 목회서신 안에 이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경건, 불경건 개념이, - 신앙고백, 십자가, 부활 등의 개념과 달리 -, 기독교적 삶의 태도에 관계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비교적 후대에 완성되어졌을 것이고, 또한 그 개념이 목회서신의 관점에 잘 일치한다는 점에서 거기에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¹⁷ 우리는 목회서신의 진정성에 대하여 바울 저작권을 지지한다(딤후 1:1; 딤후 1:1; 딤후 1:1). Donald Guthrie, *The Pastoral Epist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Leicester: IVP, 1990), 21-22. 55이하.

¹⁸ 수신처로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에베소(딤후 1:3; 딤후 1:15)와 그레테(딤후 1:5)를 우리는 지지한다.

¹⁹ 목회서신의 연대에 대해서 Marshall은 70-100년 중 초기 연대를 주장하고(*Pastoral Epistles*, 57), M. Goguel, *La Naissance du Christianisme* (Paris: Payot, 1946), 352은 후기 연대인 A.D. 90-120년을 가정한다.

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을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다만 우리는 목회서신서의 공동체 상황에 대해서 다음의 측면들을 조사해보려고 한다. 즉, 행정문제, 이단들 문제, 공동체의 윤리적 삶의 문제들을 살펴해보려고 한다.

3.1. 행정문제

목회서신에는 감독, 장로, 집사, 과부들의 공직자들과 세례, 안수, 가르침 등을 맡는 행정직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 기능직들이 왜 생겨났는가? 그것은 거짓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외부인들에게도 평판 있는 좋은 자질을 갖춘 기능직들을 선택할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위탁물인 정통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 교회에 많은 불화와 갈등이 생겨나 그 생존이 위협받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공동체에 계급구성, 규율, 예전을 정착시켜야 했을 것이다.²⁰ 목회서신은 감독, 장로, 집사, 교사들의 자질 문제를 깊이 파진다. 당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지닌 자들이 교회의 지도계급이 되려고 했을 것이다. 그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것은(딤후 3:10), 가정, 교회, 사회에서의 자질문제가 기본적인 선별요건이라는 것이다. 즉, 자질에 대한 선별 기준을 분명히 해야 교회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당시 교회의 행정직의 선별요건은 세속사회의 것과 그리고 이단적인 것과도 대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3.2. 이단들

디도서 3:10에 “이단에 속한 사람”(αἵρετικὸν ἄνθρωπον)의 언급처럼 목회서신에는 이단 혹은 거짓교사에 관한 내용이 두드러져 있다. 이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중이다. 처음 등장한 견해는 목회서신의 이단과 영지주의와의 관련설이다. 즉, 이 서신들에서 논쟁하는 이단의 정

²⁰ Goguel, *Christianisme*, 352-56; Spicq, *Pastorales*, LXXXIV.

체는 영지주의와 연관된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²¹ 즉, 기독교는 “이로 정연하고 강력한 이단”(coherent and powerful heresy)의 도전을 받았는데, 그 이단은 교회가 내세우는 계시보다 더 깊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자들이라는 것이다.²² 이들은 주로 개종한 유대인들, 즉, “할례자들”(딤후 1:10, 14, περιτομή)이고, 낮은 수준의 도덕적 가르침, 유대 율법, 소모적 논쟁, 이방인보다 못한 삶의 기준, 우화, 마술적 매력, 몸 부활의 부인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후기 영지주의나 사두개파의 가르침과 유사한 자들이다.²³ 유대적 이단자들도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이 일으킨 문제들은 유대적 가르침(딤후 1:14), 할례(딤후 1:10), 율법(딤후 1:8-11; 딤후 3:4-9), 유대적 신화와 알레고리적 족보(딤후 1:4; 딤후 1:14)등 유대 기독교적인 색채들이 있다.²⁴ 또한 이단들의 헬라적 요소도 보인다: 금욕주의(딤후 1:9), 부활부인(딤후 2:18), 이원론, 신화와 족보, 미신과 마술(딤후 3:8)등은 헬라문화에서 왔을 수 있다.²⁵ 이 요소들을 깔끔하게 구분해 내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리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학자들은 목회서신의 이단들이 유대적 이단이나, 영지주의, 말시온 혹은 그 어떤 것과도 동일시 될 수 없다고 본다.²⁶ 오히려 이 이단들의 정체가 혼합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다.²⁷ 만일 이 이단들을 그 어떤 그룹과 동일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을

²¹ Baur에 의해서 제기된 견해로 주로 2세기 영지주의와 관련시킨다: F. C. Baur, *Paulus der Apostel Jesu Christi*, II, 492-99, Werner Georg Kümmel,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박익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383-85에서 재인용.

²² B. S. Easton, *The Pastoral Epistles* (London, 1948), 1-8.

²³ Walter Lock,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 & II Timothy and Titus*, ICC (Edinburgh: T. & T. Clark, 1924), 1, 77, 121.

²⁴ Frederic Godet, *Survol des epîtres de Paul* (Saint-Légier: Emmaüs, 1991), 232-33; Edourd Cothenet, *Les Pastorales* (Paris: Cerf, 1990), 17.

²⁵ W. D. Mounce, *Pastoral Epistles*, WBC 46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0), lxxi.

²⁶ Goguel, *Christianisme*, 441; Spicq, *Pastorales*, LXX-LXXI; Guthrie, *Pastoral Epistles*, 43, 44; E. E. Ellis, *Paul and His Recent Interpreters*, 배용덕 역, 『최근 바울 연구: 바울과 그의 최근 해석자들』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6). 105-106을 보라.

²⁷ Townner, *Timothy and Titus*, 44-47.

거짓된 것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모든 범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이단자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딤후 1:3-4, ἑτεροδιδασκαλοῦντες)이고, “속이는 자들”(딤후 6:20; 딤후 3:13, νόητες)이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신학자들, 교사들, 평신도들 중에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탈선을 일으키고, 그 분이 요구하신 올바르고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폐기시키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3.3. 공동체의 도덕적 삶

목회서신은 공동체의 윤리적 삶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목사직은 다양한 활동(가르침, 비난, 격려)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가르침의 기능이 강조된다. 이 가르침은 신앙과 가정과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규범을 포함한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는 교훈은 성숙한 신자들에게 기독교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교리와 윤리를 상기하도록 주어진다. 회중들에게 주어진 것은 교훈, 복장 등의 예의바름, 세례, 규율, 폭넓은 기도, 환대 등의 가르침이다.²⁸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내부에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는 지체들이 있었는데, 분노와 다툼이 심한 남자들, 사치스런 장식을 한 여자들, 외부인들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듣거나 자질이 떨어지는 교회 공직자들(감독, 장로, 집사 등, 딤후 3:7; 딤후 1:5-8), 가정교육이나 자녀교육에 소홀한 자들(딤후 3:4, 5, 5:4), 윗분을 공경하지 않거나 과부를 홀대하는 자들(딤후 5:1, 3, 6:1), 부를 갈망하는 자들(딤후 6:9), 헛된 논쟁을 즐기는 자들(딤후 2:14)등 참된 신자의 삶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주변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패륜적 삶의 방식도 언급되는데, 자기애, 돈 사랑, 교만, 횡방, 배만, 무절제, 참소, 사나움(딤후 3:2)등이 그것이고, 게다가 각종 불법들, 즉, 음행, 남색, 탈취, 거짓말 등도 넘쳐난다는 것이다(딤후 1:9-10). 특히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 악한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로 소개되고 있는데(딤후 1:12), 이

²⁸ Marshall, *Pastoral Epistles*, 54-56.

러한 세속주의가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 요소들이 교회에서 활기를 띠어가는 상황이었고(딤후 1:13, 14), 이러한 것들로 교회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딤후 1:4).

그러나 목회서신이 윤리적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것은 중류사회의 부르주아적 윤리(이상적인 그리스도교적 시민사상)²⁹는 아니다.³⁰ 어떤 특정 그룹을 향한 윤리가 아니라, 수신자들이 다양한 것처럼 전 공동체의 보편적 가르침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상 “감독이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딤후 3:2, 8)의 표현들은, 집사나 감독이 아니라 보편적인 수신자(혹은 평신도)를 가정하기 때문이다.³¹ 그러므로 이 교훈들은 “이미 발전된 교회법”³² 이라기보다 “발달되지 않은 교회구성의 초기 발전과정”³³을 묘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3.4. 결론

1세기의 후반부, 바울의 황혼기에, 교회가 이제 막 자리 잡아 가기 시작하였을 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것이다. 에베소와 그레데 도시의 윤리와 도덕수준의 해이, 그리고 박해 등에 기인한 그 시대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밀어닥치는 조직과 행정, 구성의 문제, 교리적 측면에서 이단들의 거센 위협, 재림(parousia)의 지체와 더불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방식들로 혼란한 틈에, 바울은 먼저 그 시대 젊은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역시 그 교회

²⁹ 이 표현은 Martin Dibelius, *Die Pastoral Briefe*, 박익수 역, 『목회 서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22-26, 67-69에서 왔다.

³⁰ Towner, *Timothy and Titus*, 16, 163, 355, 769.

³¹ 예를 들면, “τις”(딤후 1:6, 8, 3:1, 5:8, 6:3; 딤후 2:21), “πᾶς”(딤후 2:2, 4:9, 10), “θεοσέβεια”(딤후 2:10), “ἀνὴρ”(딤후 2:8; 딤후 2:5), “γυνή”(딤후 2:9; 딤후 2:3), “διάκονος”(딤후 3:8; 12, 13), “πρεσβύτερος”(딤후 4:10), “νέος”(딤후 5:14; 딤후 2:6), “δοῦλος”(딤후 6:1; 딤후 2:9) 등의 표현들을 보면 특정 그룹이나 특정인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수신자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유사한 관점 안에서 다음을 참조하라: Raymond F. Collins, *1 & 2 Timothy and Titu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2.

³² Kümmel, 『신약정경개론』, 385-88.

³³ Marshall, *Pastoral Epistles*, 52-57.

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어떻게 목회서신에서 경건과 불경건 용어가 사용됐는지 살펴볼 것이다.

4. 목회서신안의 경건과 불경건

우리는 목회서신에서 경건과 불경건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용어들이 나타나는 본문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4.1. 경건

- 딤편전 2:1-15(2절 εὐσέβεια, 10절b θεοσέβεια). 2절의 경건은 헬라세계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구약전승 자료로부터 온, 예전적 의무의 성취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선한 행위들)를 가리킨다.³⁴ 따라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려면 안정이 되어야 하므로 지도자들(혹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10절의 θεοσέβεια 역시 구약전승의 유산이다. 이 절에서 경건과 선행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이미 헬라세계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도 나타났었다. 즉, 구약이 YHWH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선행을 결합하였다면, 신약도 이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요 9:31; 행 3:12). 이 부름은 기독교인 전체에게 적용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θεοσέβεια, 10b)의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건 용어와 더불어 15절을 주목해야 하는데 많이 논쟁되고 있는 구절이다.³⁵ 이 절은 여성들의 경건생활의 열매는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목회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딤편전 4:16),³⁶ 목회서신 구원론

³⁴ Spicq, *Pastorales*, 56; Dibelius, 『목회 서신』, 66; J. N. D. Kelly, *A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 Timothy, II Timothy, and Titus* (New York: Harper & Row, 1963), 61.

³⁵ 논쟁들에 대해서 다음 책을 보라: Marshall, *Pastoral Epistles*, 469-70.

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가 대속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한다(딤후 2:4-6; 딤후 1:9).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8절, οὖν)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즉 이방인들에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무료구원을 주셨다면, 그에 걸 맞는 삶을 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도록(4절) 신자들은 힘쓸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분노나 다툼 없이 기도하고, 여자들은 에베소 아데미 여신의 음란한 자세와 방불한 화려한 장식보다도³⁷ 오히려 선행을 하라고 초대되고 있다(2:10).

- 딤후 3:14-16(16절, εὐσεβεια). 16절은 경건용어의 신약적 의미를 표명하고 있는 가장 탁월한 구절이다. 사실, 찬가(16절)가 들어있는 이 구절들은 디모테전서의 절정, 중심 혹은 목회서신 전체의 중심으로 간주되기도 한다.³⁸ 그러면, 14절의 “이것들”(ταῦτα)은 무엇을 가리키나? 그것은 3:1-13을 혹은 더 넓게 목회서신 전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³⁹ 그런데 16절에서 경건 용어가 예수의 모든 사역(탄생-승귀)에 연결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유대적, 구약적 의미가 신약적 의미로 재정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15절은 기둥과 기초로서의 집인 하나님의 집안에서의 행동지침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기독교적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딤후 6:3인데 역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 종합하면 예수의 지상의

³⁶ Yann Redalie, *Paul Après Paul: Le Temps, le Salut, la Morale Selon les épîtres à Timothée et à Tite* (Genève: Labor et Fides, 1994), 293.

³⁷ Lock, *Pastoral Epistles*, 31; Spicq, *Pastorales*, 69; George William Knight, *The Pastoral Epistl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1992), 135.

³⁸ Spicq, *Pastorales*, 103; P. Dornier, *Les Epîtres Pastorales* (Paris: Gabalda, 1969), 66; Redalie, *Paul*, 244.

³⁹ “이것들”(ταῦτα)이 지시하는 구절들에 대한 견해는 4가지이다. 1) 딤후 2-3장(Knight, *The Pastoral Epistles*, 178). 2) 딤후 3:1-13(Redalie, *Paul*, 245). 3) 딤후 전채(Benjamin Fiore, *The Pastoral Epistles: First Timothy, Second Timothy, Titus* (Liturgical Press, 2007), 83; Kelly, *Pastoral Epistles*, 86). 4) 목회서신전체(Spicq, *Pastorales*, 103). 모두 타당한 것 같다.

삶부터 승귀까지의 생애가 모두 신자들을 위한 참된 기독교적 경건의 내용이 된다(16절). 즉 하나님의 집안에서(3:15)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15절), 예수님의 삶은 그의 탄생, 그의 의(justice)의 사역, 부활, 승귀 등, 그의 사역 모든 것이 경건의 교리적 내용이고, 실천적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⁴⁰ 그러므로 경건의 비밀(16절)이란 이방적 경건이나 심지어 구약적 경건도 추월하는 대단히 신비로운 것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안에 참된 경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딤편전 4:6-16(7, 8절, εὐσέβεια). 여기서 경건 용어가 두 번 사용되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경건은 대조되고 있다(7절). 경건의 유익성은 금생과 내생의 보장이자(8절). 특히 내생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경건은 “좋은 교훈”(6절), “믿는 자들의 구주”(10절), “이일을 계속적으로 행함으로...구원하리라”(16절)와 연결 지어 볼 때 구원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그럼 어떻게 해야 경건 생활에 이르나? 모범적 삶(말, 행실, 사랑, 믿음, 정직 등)을 살고, 교훈을 읽고, 가르치는 것 등을 연습(γυμνάζω, 4:7)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불경건하고(7절, βέβηλος), 비역사적인 신화(7절, μῦθος, 참조: 1:4)와 대조된다는 것이다. 이 경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될 뿐 아니라(9, 10절, πάντων ἀνθρώπων), 특히 “믿는 사람들”(μάλιστα πιστῶν, 10절)에게 더 요구되는 사항이다.
- 딤편전 5:3-16(4절, εὐσέβεια). 과부들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4절에 경건 용어가 언급되어 있다. 헬라적 용법이나⁴² 유대적 용법에서 경건은 하나님이나 가족이나 양친, 사회 서열이 높은 이들에게 부여되는 존경의 극치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헬라에서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은 참다운 덕의 표시였고, 구약도 이웃 사랑

⁴⁰ 참조: Fiore, *Pastoral Epistles*, 87.

⁴¹ 참조: Lewis R. Donelson, *Pseudepigraphy and Ethical Argument in the Pastoral Epistles* (Tübingen: Mohr Siebeck, 2006), 84.

⁴² Wieland. *The Significance of Salvation*, 54.

계명 중에 부모공경을 최우선시 한다. 이 절에서 말하는 바는 가족관계에서 본인은 물론 온 가족들(자녀, 손자 포함)이 경건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부의 경건생활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고(5절), 모든 선한 행실들(자녀 양육, 나그네 접대, 세족, 구제 등)을 해야 하고, 만일 과부친척이 있는 자는 그를 교회에 짐 지우지 말고(9, 16절), 반드시 그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족관계에서 경건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론적 측면에서 불행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부연하고 있다(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과부친척을 돌보지 않은 자도 역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8절).

- 딤후 6:3-19(3, 5, 6, 11절, εὐσέβεια). 이 단락에서 그 용어는 4번 사용되고 있다. 3절은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으로 구분되는데(참조. 딤후 1:3, 10), 후자는 기독교 삶 혹은 진리의 지식에 관한 교훈이다. 즉 3절의 경건에 속한 교훈(참조. 딤후 1:1)은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모든 사도의 설교를 포함하는 말”이거나⁴³ 혹은 “진정으로 종교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⁴⁴ 5절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여러 가설이 있겠지만,⁴⁵ 그들은 종교생활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탈선한 기독교인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 단락이 “부하려 하는 자들”(9절), “돈을 탐내는 자들”(10절), “부한 자들을 명하여”(17절)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딤후 3:5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주변 철학자들이 교훈을 판매하는 방식처럼,⁴⁶ 어떤 거짓 지도자들(거짓교사)도 그러한 방식을 들여와 교회 내

⁴³ Spicq, *Pastorales*, 185.

⁴⁴ Jerome D. Quinn & William C. Wacker,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imothy: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2000), 492.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Quinn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다(참조. Guthrie, *Pastoral Epistles*, 123: “불경건성과 대조된 가르침”; Knight, *Pastoral Epistles*, 250: “기독교의 진리”; Mounce, *Pastoral Epistles*, 337: “선포의 효과”).

⁴⁵ Marshall, *Pastoral Epistles*, 642-43을 참조하라.

에서 활발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절에서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현생과 내생의 삶에 큰 유익과 관련된다는 의미와(4:8), 편안한 일상생활을 유지케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자족하는 마음은 최소한의 양식에도 만족하고(8절),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7절), 있으면 나눠주고(18절),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17절). 11절의 경건은 구원론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즉, 경건, 의, 믿음, 덕목들은 영생으로 통한다면(19절), 부의 시험, 올무, 욕심에 빠지면(9절), 믿음에서 떠나고(10절), 심판받고(4절), 영원한 멸망(9절, ὀλεθρον, ἀπώλεια⁴⁷)에 떨어지는, 종말의 구원론적 의미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첫 부분은(6:3-10)은 거짓된 교훈들과 바른 교훈을 대조시키면서 교만과 탐욕으로 시작되어 결국에는 신앙을 잃게 될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둘째 부분(6:11-19)은 경건과 세속의 삶을 대조시키는데, 경건은 선한 일들, 즉, 신앙방어, 진리고백, 환대, 자선(18절, εὐμεταδότους) 등에 관계하고, 반대로 세속적 삶은 세상(부, 재물 등)에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다.

- 딤후 3:1-17(5절 εὐσέβεια, 12절 εὐσεβῶς). 그 용어는 여기서 두 번 나타난다. 5절의 경건의 모양은 위선을 가리킨다(딤후 1:16,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겉치레만 종교적인 자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즉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나 그들의 행위는 악덕들의 목록이 말해주는 것처럼, 자기애, 물질욕, 교만, 부모 불공경, 무정, 무절제 등에 빠진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믿음에서 버리운 자들이다(8절). 경건의 힘이란 현생에 평안뿐 아니라(딤후 2:2) 내생의 약속(딤후 2:2, 4:8)도 보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구원하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힘이다(딤후 3:5). 12절에 따르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주도되어 있기 때문에(딤후 3:16), 경건을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

⁴⁶ Spicq, *Pastorales*, 188.

⁴⁷ 이 용어들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 Lock, *Pastoral epistles*, 69; Spicq, *Pastorales*, 191; Fiore, *Pastoral Epistles*, 121.

님과 같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박해의 끝에 구원에 이르게 될 것도 언급하고 있다(15절).⁴⁸ 무료 구원 접수후의 신앙적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은, 참된 경건의 삶은 그 스승처럼 박해를 받으리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목회서신에서 경건개념과 십자가의 결합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나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12절).

- 딤후 1:1-4(1절, εὐσέβεια). 서신서 서두의 “경건에 따른”(1절, κατ’ εὐσέβειαν) 용어는 “정통교리에 일치하는”을 의미한다.⁴⁹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은 경건에 따른 가르침(딤후전 6:3, 참조 딤후전 1:10)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다른 교훈(딤후전 1:3)과는 반대적 의미로 사용된다. 경건은 종당에 영생에 연결되고 있다. 즉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그 약속은 영원 전에 세워진 것인데, 경건의 진리는 사색적이거나, 세속적인 것,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종교, 참된 기독교의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세상 질서와 공동생활을 보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⁵⁰
- 딤후 2:11-15(12절, εὐσεβῶς). 12절에서 경건(εὐσεβῶς)용어가 불경건(ἀσεβεία) 용어와 대조되어 나타난다(참조 아래 4.2.). 이 단락은 윤리적 주제들과 구원론적 주제들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12절의 신증, 의, 경건은 플라톤(Platon)이나, 유대교의 필로(Philo)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목회서신의 덕목들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⁵¹ 목회서신의 덕목들은 구약의 덕목들에다가 구원론과 기독교론적 관점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왜 경건에 초대하는가? 이 교훈은 1장이

⁴⁸ Ray Van Neste, *Cohesion and Structure in the Pastoral Epistles* (London;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215, 217.

⁴⁹ Spicq, *Pastorales*, 220.

⁵⁰ Redalie, *Paul*, 138.

⁵¹ S. C. Mott, *Greek Ethics and Christian Conversion. The Philonic Background of Titus 2, 10-14 and 3, 3-7* (NT 20, 1978), 22-48은 목회서신의 덕목들이 Philo에게서 영향 받았다고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덕목들은 구약에서 왔다.

묘사하는 타락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딤편 1:12-13에 따르면, 그레데 도시의 윤리, 도덕 수준이 당대인들이나 바울의 시각에도 심각한 타락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교회내의 유대적 경향의 신자들은 그레데인들의 세속주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집들(복수형)을 온통 덮어 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딤편 1장도 에베소도시에 불법, 살인, 음행, 남색, 탈취, 거짓말 등이 가득함을 말하고 있다(9, 10절; 딤편 3:2, 3, 4). 밀려오는 세속주의 앞에서 목회 서신서 저자는 선한 일들의 권고 등 윤리적 가르침을 주고 있다(2:14; 딤편 3:2).

4.2. 불경건

- 딤편 1:3-11(9절, ἀσεβής). 목회서신에서 ἀσεβής(“경건치 않은”)용어가 맨 처음 등장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치 않은 세상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9절을 보면, 불경건은 율법과 연결되어 있다. 구약에서 경건이 율법, 언약, 도덕적 충성의 위배 혹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결합되었다면(2.2.),⁵² 여기서도 율법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불경건한 자, 각종 음행, 남색,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위한 경고로 주어지고 있다(9, 10절). 어쨌든 이 단락은 교리적인 면에서 다른 교훈(1:3)과 바른 교훈(1:10)을 대조시킨다. 헬라에서는 종교의 예배나 교리를 거절하는 자가 불경건한 자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건에 관련되고 있다(1:11). 전체적으로 이 본문은 교리적 탈선과 그에 기인된 실천적 탈선을 논쟁하는데,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결국 불경건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교리적으로 율법의 바른 이해에서 벗어나서, 신화와 족보의 헛된 말이나(딤편 1:4, 4:7; 딤편 2:16; 딤편 3:9), 혼인금지와 금욕주의의 귀신적 가르침(딤편 4:1)⁵³을 따르거나, 바른 교훈을 거절하는 자들(딤편 4:3;

⁵² Marshall, *Pastoral Epistles*, 140; Spicq, *Pastorales*, 127.

⁵³ 이것들을 특정한 그룹에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엔크라티트주의자들, 말시온주의, 발렌티누스파, 마니교나 동서양의 이방 철학, 종교에도 나타난다(Spicq, *Pastorales*, 137).

딤후 1:9, 14, 2:1), 심지어 이단에 속한 사람(딤후 3:10)과 반대로 청결,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1:5), 옳은 사람(1:9)을 대조시킨다. 여기서 “불경건한”은 “죄있는”(9절, ἁμαρτωλός)과 자주 연결되는 용어이다.⁵⁴

- 딤후 2:14-26(16절, ἀσέβεια). 여기서, 불경건이란 망령되고 헛된 말(2:14, 16, 23)을 하는 것이고, 기존의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진리(부활)를 부인하고(18절), 갈망(22절), 다툼(23절), 불복종(25절)등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의 불경건의 요소들은 이미 그리스-로마의 불경건의 목록에도 나타나는 것들인데 문자적으로 보아 경건의 연습처럼(딤후 4:7) 불경건 역시 점점 더 발전한다(προκόπτω, 딤후 2:16)는 의미가 있다.⁵⁵ 요점은 기독교적 불경건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18절), 마귀에 잡혀(26절) 구원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
- 딤후 2:11-15(12절, ἀσέβεια). 12절에서 불경건(ἀσέβεια)과 경건(εὐσεβῶς)의 두 용어가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세 가지 점에서 의미 있다: (1)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대로, 경건과 불경건은 확실히 대조적인 의미로 찾아져야 한다는 것. (2) 이것이 목회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은 종합적, 경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3) 이들은 이미 가져온 구원의 은총 안에서 중요성이 있으나 역시 궁극적으로 죄악 된 세상과 유리된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것. 14절은 목회서신 구원론의 정수를 언급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불경건은 이 세상 정욕이며(2:12), 불법적인 것이다(2:14). 이와 대조된 경건함은 근신함, 의로움과 나란히 병행한다(2:11). 결국, “모든 불법”(14절; 딤후 1:9)과 “선한 일들”(14절)은 대조되어 나타난다. 목회서신에서 말하는 불경건의 요소들은 귀신적 교훈(딤후 4:1; 딤후 2:26), 더러운 양심(딤후 1:19; 딤후 1:15), 부패함(딤후 6:5; 딤후 3:13), 거짓말(딤후 4:2; 딤후 3:5; 딤후 1:16), 더러움(딤후 1:15), 이익추구

⁵⁴ Marshall, *Pastoral Epistles*, 339, 379.

⁵⁵ Donelson, *Pastoral Epistles*, 87, 107.

(딤후 1:11; 딤후전 6:5) 등이다. 요약하면, 두 대조가 서있다. 1. 불경건, 세상 정욕과 근신, 의, 경건(12절). 2. 불법과 선한일(14절). 특히 두드러진 점은 선한 행실이 세 서신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들이란 점이다(딤후 2:14; 딤후전 3:1, 13, 5:10).⁵⁶

4.3. 결론

목회서신의 경건과 불경건 용법은 구약 경건 개념에다 여러 신약적 사상(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승귀)을 덧붙였다고 볼 수 있다.⁵⁷ 즉 경건에의 부름은 하나님과 인간들에 대해 불경건하게 사는 이방세계로부터 선택된 자들을 불러내어 경건하게 살도록 초대하는 부름인데, 그것은 바른 교리와 모든 선한 행실들⁵⁸에의 초대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5. 신학: 구원론

경건 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목회서신의 신학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기독교론, 교회론, 구원론, 윤리 등의 요소들이 모두 드러나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⁵⁹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기독교론이라고 말할

⁵⁶ 그 외 선한 전투(딤후전 6:12), 선한 평판(딤후전 3:7), 선한 지위(딤후전 3:13)등의 용어도 빈번하다.

⁵⁷ 참조: Stanislas de Lestapis, *L'Enigme des pastorales de saint Paul* (Paris: Gabalda, 1976), 341.

⁵⁸ 그런데, 모든 신약 본문들은 자선이 참된 경건의 표시라고 언급하는데, 목회서신에서 자선에 일치하는 용어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선한 행실에는 자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Douglas Alan Diehl, *The Significance of Almsgiving in Primitive Christianity as a Means of Understanding New Testament Piety* (Ann Arbor, Michigan: U.M.I., 1991), 189, 192-95, 198. 누가복음에서도 참된 제자의 시금석으로 자발적인 소유의 포기과 구제 등 선행이 강조된다. 참조: 오성중, “누가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와 구제, 소유의 포기, 구원”, 『성경과 신학』 제 46권 (2008년 5월): 62-114.

⁵⁹ 목회서신안의 두드러진 신학적인 측면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기독교론과 구원론(Spicq, *Pastorales*, CLXVII-CLXXIV) 혹은 기독교론과 교회론(Marshall, *Pastoral Epistles*, 101)이 중심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디벨리우스는 기독교론적인 관점이 다양하여 통일된 기독교론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본다(Dibelius, 『목회 서신』, 25).

수 있다. 사실, 이것을 능가하는 신학적인 요소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이 모든 신학과 신약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귀까지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재정의 되고 있으므로, 가히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경건은 윤리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적지 않은데,⁶⁰ 그것을 덕으로써 규정할 때는 도덕적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목회서신이 윤리와 도덕적 차원도 풍성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경건 용어의 이런 윤리적인 측면은 모든 이방 세계(그리스, 로마, 소아시아, 이집트 등)의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새로운 측면이 아니다. 어쨌든, 19세기 이후 대다수 학자들이 이 윤리적 측면을 강조해왔다.⁶¹ 이 차원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인간 생활에 결핍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차원에는 어떤 한계성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의 실천이 개개인의 임의적인 행동이나 선택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어떤 강제성도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목회서신의 εὐσεβεια어군에는 교회론도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목회서신에서 이 측면은 하나님의 집(딤후 3:15, 혹은 교회)으로 표현되는 교회내의 질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교훈이다. 건전한 공동체의 삶은 올바른 교리와 제반 경건생활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건은 신자의 도덕이 아니라, 교회의 도덕이다.”⁶²

그러나 목회서신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점은 구원론이다. 사실 목회서신에서 구원론은 두드러진데, 우리는 목회서신의 구원론의 두 측면을 구별할 수 있다. 먼저, 이 서신 전체는 “예수 구원자”의 사상, 즉, 하

⁶⁰ Marshall, “Pastoral Epistles,” 142는 기독교 윤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건이라고 보고 있다. Spicq는 종교의 덕을 경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Spicq, “Religion,” 210ff.). Philo 역시 가장 크고 높은 덕을 경건으로 보고 있다(De Abrahamo 60; De Opificio Mundi 154; Quaestiones in Genesim 1.10).

⁶¹ 이 측면은 주로 디벨리우스나 피르스터에서 볼 수 있다. Dibelius, 『목회서신』, 66; Foerster, οὐσεβεια, 182; 또 다른 대표자는 Mott, *Greek Ethics*, 22-48이다.

⁶² 이 표현은 스피크의 것이다. Spicq, *Pastorales*, CLXVIII.

나눔께서 그 분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개념을 강조한다(딤후 2:9-10; 딤후 2:11). 이 개념은 경건용어에도 적용되어 있는데 즉, 그리스도의 탄생, 삶과 죽음, 부활, 승귀의 전 차원이 들어있다(딤후전 3:16). 다음으로, 우리는 경건/불경건 용어들이 심판 개념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말론적 구원은 신적 요구에 들어맞는 실천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경건은 구원론적이다.⁶³ 사실 이방세계에도 경건사상과 불경건 사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런데 이방적 경건/불경건은 강하게 윤리적, 도덕적 측면의 유무를 드러내지만, 이것이 인류사회의 행위를 제어할 힘은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것은 교회내부에도 불경건 사상을 함부로 들여온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따라서, 이런 자들에 대한 제재의 한계성을 해결하는 측면이 목회서신의 구원론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서신은 종말론적 구원에 실패하게 될 위태로운 기독교 신자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즉, 구원에 실패한 자들, 딤후전 5:15; 딤후 2:26), “심판에 나아가는 자들”(딤후전 5:24), “믿음에서 떠난 자들”(딤후전 6:10; 딤후 2:18; 3:8),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딤후전 4:1), “파멸과 멸망에 빠질 자들”(딤후전 6:9). 이러한 언급들은 기독교인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이다. 결국 경건에의 부름은 불경건하게 사는 인류와 그와 유사한 어떤 기독교인들의 해이해진 윤리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고, 건전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장하는 구원론적 의미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결 론

목회서신의 경건/불경건의 의미는 1) 이방세계도 이방신들이나 이웃에 대

⁶³ Spicq, *Pastorales*, CLXVII, 130.

한 경건/불경건 사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경건한 백성들이라는 것. 2)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참된 경건심을 세우려 했지만, 그들의 신적지식과 삶은 불경건하다는 것. 3)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기초한 경건의 새로운 이해와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헬라세계에도 윤리적 측면의 경건 사상과 그의 실천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자료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구약의 진단에 따르면 이방 세계는 불경건으로 가득 차 있다(2.2.).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설립을 계획하고 경건한 생활을 요구했다. 구약의 경건 용법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 경건생활이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지향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불경건으로 멸망하였다면(참조: 위의 2.2.), 신약의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이방 세계보다 더 나은 새로운 경건성을 설립하라는 요구이다.

그런데, 헬라세계와 유대교의 경건의 주체가 이방신과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목회서신의 경건 개념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개념이었다. 즉, 하나님께 집중된 경건사상을 포함하여 신약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선포, 부활, 승귀로 주조된 경건한 삶을 말하고 있다. 목회서신의 경건 사상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모방하는,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과 인식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식론적 측면과 행위론적 측면에서 예수님(하나님)을 경배의 중심으로 하고, 또한 그 분이 요구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목회서신의 경건/불경건 용법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불법에서 벗어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과거에, 경건에 불려 졌던 이스라엘이 이방의 불경건을 답습함으로 파멸하였다면 새 백성은 같은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서신의 구원론의 특징은 경건한 삶은 구원을 보장하지만 불경건한 삶은 그것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Bauer, Walter.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rtram, G. θεοσεβής. *TDNT* III, 123-28.
- Collins, Raymond F. *1 & 2 Timothy and Titu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Cothenet, Edourd. *Les Pastorales*. Paris: Cerf, 1990.
- Dibelius, Martin. *Die Pastoral Briefe*. 박익수 역. 『목회 서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 Diehl, Douglas Alan. *The Significance of Almsgiving in Primitive Christianity as a Means of Understanding New Testament Piety*. Ann Arbor, Michigan: U.M.I., 1991.
- Donelson, Lewis R. *Pseudepigraphy and Ethical Argument in the Pastoral Epistles*. Tübingen: Mohr Siebeck, 2006.
- Ellis, E. E. *Paul and His Recent Interpreters*. 배용덕 역. 『최근 바울 연구: 바울과 그의 최근 해석자들』.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6.
- Fiore, Benjamin. *The Pastoral Epistles: First Timothy, Second Timothy, Titu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7.
- Foerster, W. σέβομαι. *TDNT* VII, 168-196.
- Fuhs, H. F. ἄγ. *TDOT* VI, 290-315.
- Godet, Frederic. *Survol des epitres de Paul*. Saint-Légier: Emmaüs, 1991.
- Goguel, M. *La Naissance du Christianisme*. Paris: Payot, 1946.

- Guthrie, Donald. *The Pastoral Epist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NTC 1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Leicester: IVP, 1990.
- Kelly, John, Norman Davidson. *A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 Timothy, II Timothy, and Titus*. New York: Harper & Row, 1963.
- Knight III, George W. *The Pastoral Epistl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2.
- Kümmel, Werner Georg.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박익수 역. 『신약 정경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Lesêtre, Henri. Piété. DBS V. ed. Pirot, Louis, Vigouroux, Fulcran Grégoire. Paris: Letouzey et Ané, 1912.
- Lestapis, Stanislas de. *L'Enigme des pastorales de saint Paul*. Paris: Gabalda, 1976.
- Lock, Walt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 & II Timothy and Titus*. ICC. Edinburgh: T. & T. Clark, 1924.
- Marshall, I. Howard. *The Pastoral Epist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99.
- Mott, S. C. "Greek Ethics and Christian Conversion. The Philonic Background of Titus 2, 10-14 and 3, 3-7." *NT* 20 (1978): 22-48.
- Mounce, William D. *Pastoral Epistles*. WBC 46.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0.
- Powell, Samuel M. *A Theology of Christian Spiritualit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Prior, C. M. Michael. *Paul the Letter-Writer and the Second Letter to Timothy*. Sheffield: JSOT Press, 1989.

Quinn, Jerome D. & Wacker, William C.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imothy: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ECC.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2000.

Redalie, Yann. *Paul Après Paul: Le Temps, le Salut, la Morale Selon les épîtres à Timothée et à Tite*. Genève: Labor et Fides, 1994.

Spicq, C. *Les Epîtres Pastorales*. EB. Paris: Gabalda, 1947.

_____. “Religion.” DBS X (1981): 210-40.

Towner, Philip H.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NICNT. Grand Rapids, MI: W.B. Eerdmans Pub. Co., 2006.

Van Neste, Ray. *Cohesion and Structure in the Pastoral Epistles*. London;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Wainwright, J. J. “Eusebeia [especially in the Pastoral Epistles]: Syncretism or Conservative Contextualization?” *EQ* 65 (1993): 211-24.

Wieland, George M. *The Significance of Salvation: A Study of Salvation language in the pastoral epistles*. Carlisle: Paternoster Press, 2006.

오성종. “누가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와 구제, 소유의 포기, 구원”. 「성경과 신학」 제 46권 (2008년 5월): 62-114.

*Abstract***The Concept of Piety and Impiety in the Pastoral Epistles**

Koo, Ki-Chung

In the New Testament, the closest terminology to Christian “spirituality” is the term “piety”(εὐσέβεια). This terminology appears most frequently in the pastoral letters, where the word is contrasted with the word “impiety”(ἀσέβεια). In the theological point of view, such a contrast is significant for the word is closely connected with soteriology. In order to explain the use of the terms, we investigated the origin of the word, the *Sitz im Leben* of the community, and the contrast between the concept of piety and impiety in the pastoral epistles. The primary question is: how the concept of piety in the pastoral epistle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Hellenistic and Jewish concept?

After all, in the pastoral letters, the notion of piety seems to imply that although the pagan world had a concept of reverence to their deities and neighbors they were fundamentally ungodly people, and God intended to establish a true pious community. But for many years, the ungodly thought and acts against God prevailed among the people of Israel, and finally Jesus founded his new eschatological community in order to grant them a new understanding of reverence and an attitude of life according the life and death of Jesus Christ. The central concept of piety in the pastoral epistles is that Jesus is the only Savior, and he wanted his people to avoid impiety, and maintain a good life. That is, if Israel was destroyed because they followed the example of the secular

world, and then the messianic community must not repeat the same mistake. So the pastoral epistles are saying that a pious life secures a place in Heaven, but an impious life does not.

Key-Words: Piety, Impiety, Ethics, Salvation, Virtue, Good works